

핵억지 이후의 전략 경쟁 — 인도-파키스탄 핵정치의 역설

김태형 지음,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서강대학교 출판부, 2025)를 읽고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들어가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평화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 사건과 이론적 관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1947년 분리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과 여러 차례의 군사적 위기를 겪었으며, 1998년 양국의 핵실험 이후에는 핵 억지 체제하에서 반복되는 위기의 전형적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Ganguly, 2001; Ganguly-Hagerty, 2005). 핵 보유가 대규모 전면전의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평가와 함께, 테러와 무장단체 활용, 국지적 무력 충돌과 같은 낮은 수준의 재래식 도발(sub-conventional)의 공간을 오히려 넓혔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Kapur, 2007). 2025년에도 양국 사이에서 핵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고, 최근 국제정치에서도 핵억지와 위기 관리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오늘의 국제정치를 정면으로 비추는 생생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만큼이나 관련된 이론적 논의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월츠의 신현실주의적 관점, 곧 핵무기 확산이 전면전을 억지해 장기적인 전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Waltz, 1979). 다른 한편에는 세이건 류의 비관론이 존재한다. 조직 실패, 지휘통제의 취약성, 비국가 행위자의

존재, 국내정치 변수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는 오히려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Sagan, 1996). 남아시아 핵정치는 이 논쟁이 구체적 사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으로 여겨져 왔다. 나랑의 핵태세 이론과 카푸르의 남아시아 전쟁 및 위기 분석 등은 이러한 논의를 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작업들이다(Narang, 2014; Kapur, 2007).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는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를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양국이 긴 영국 식민지 지배 이후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응축된 갈등 구조, 반복된 전쟁 경험,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축적된 위협 인식이 어떻게 핵개발을 전략적 선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핵보유 이후 양국의 군사전략과 위기관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장기간 지속된 전략 경쟁의 산물이며, 그만큼 핵보유 이후의 전략 변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지역 연구와 국제정치 이론을 의식적으로 결합하려는 저자의 노력으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저자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국가의 생존 추구, 세력균형과 안보 딜레마라는 신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를 남아시아 사례에 적용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 속에서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있다. 동시에 국내정치와 정체성, 군부와 정보기관, 비국가 행위자와 같은 구조 외적인 요소도 일정 부분 고려함으로써 남아시아 핵정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밀도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본 서평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책의 주요 논지를 정리하고, 그 학문적 의미와 함께 남겨진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리독립과 카슈미르 분쟁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핵경쟁이 형성된 역사적, 현실정치적 맥락을 짚어본 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로와 핵보유 이후 전략 변화에 대한 저자의 분석을 따라간다. 이어서 이 책이 신현실주의와 핵확산·핵전략 논쟁, 특히 안정-불안정 역설과 제2핵시대(Second Nuclear Age) 논의 속에서 갖는 위치를 가늠해보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안보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II. 분쟁의 역사적·현실정치적 맥락

남아시아에서 핵무기가 등장한 과정은 한두 차례의 기술적 도약이나 개별 지도자의 결단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1947년 분리독립 이후 누적된 갈등 구조, 여러 차례의 전쟁과 위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 정치의 영향이 중첩된 결과였다. 저자는 남아시아 핵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규정해 온 역사적, 현실정치적 맥락을 먼저 제시한다.

출발점은 1947년 분리독립이다. 영국 식민지 지배가 끝나면서 인도 아대륙은 종교와 정치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나뉘었다. 인도는 다양한 종교·언어·민족을 포괄하는 세속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 반면, 파키스탄은 인도 무슬림 공동체의 정치적 보호를 위해 세워진 국가였다. 저자는 이 차이가 두 국가 간의 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국가 건설 모델을 둘러싼 경쟁의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부터 인도와의 대비 속에서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는 안보 문제를 곧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은 인도와의 전략 경쟁을 파키스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는 배경이 되었다.

분리독립 직후 벌어진 제1차 카슈미르 전쟁(1947~48)은 이러한 갈등 구도를 구조화한 사건이었다. 무슬림 다수 지역이지만 힌두 통치자의 선택으로 인도에 편입된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 인도에게 카슈미르는 세속주의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정체성의 시험대였고, 파키스탄에게는 “분할이 미완인 채 남은 영토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카슈미르는 국경선 분쟁을 넘어 두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충돌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고, 이후 군사 충돌과 정치적 위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긴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후의 전쟁 경험은 이러한 갈등 구조를 더욱 굳혔다. 1965년 전쟁과 1971년 전쟁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와 자국 안보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 시도한 결과로 해석된다(Ganguly·Hagerty, 2005). 특히 1971년 전쟁과 방글라데시의 독립은 파키스탄에게 군사적 패배를 넘어 국가 정당성과 통합의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대로 인도에게는 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

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파키스탄 엘리트에게 재래식 군사력 경쟁만으로는 인도와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강화했고, 보다 근본적인 균형자(equalizer)를 찾으려는 동기를 제공했다(Paul, 2014).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전략 환경 속에서 점차 구체적 선택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남아시아 안보 환경은 지역 내부 요인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냉전 구조와 강대국 정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62년 중-인 국경전쟁과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은 인도의 전략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핵보유는 핵무기가 군사기술을 넘어 국제정치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규정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했고, 인도 내부에서는 핵옵션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동시에 파키스탄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인도를 견제하려 했지만, 동맹 의존의 불안정성은 핵무기를 보다 자율적인 억지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 분리독립 이후의 갈등 구조와 카슈미르 문제, 1965년과 1971년의 전쟁 경험, 중국의 부상과 핵보유, 미·중과의 동맹 관계 등 여러 요소가 겹치면서 남아시아 안보 환경은 점차 핵개발을 전략적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핵무기는 이러한 긴장과 경쟁이 축적된 끝에 등장한 결과로서, 양국 안보전략에서 점차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저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이 군사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국가 정체성과 안보 경쟁, 여기에 국제정치 환경이 만들어낸 역사적, 현실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III. 핵개발 경쟁과 전략 변화

저자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핵무기를 선택했고, 핵보유 이후 양국의 전략 환경과 군사교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구조적 맥락이 ‘왜 핵이 등장했는가’를 설명했다면, 이 부분은 ‘핵이 어떻게 사용 가능한 전략 자산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두 국가는 모두 핵보유국이지만, 위협 인식과 전략 문화,

국내정치 구조의 차이가 핵개발 경로와 핵전략 선택에 서로 다른 궤적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인도의 경우, 핵개발은 파키스탄만을 겨냥한 선택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넓은 전략 환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저자는 1962년 중-인 전쟁과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을 인도 핵옵션의 성격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제시한다. 독립 직후 비동맹과 세속 민주주의, 도덕정치를 결합한 국가상을 추구하던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전쟁 패배와 핵실험을 겪으며 핵옵션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점차 기울어 갔다. 동시에 국제적 지위에 대한 욕구, 핵 과학자 집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민간 정치지도부와 군부의 관계, 비확산 체제와 서방 핵질서에 대한 불만이 인도의 핵정책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 오랜 기간 인도는 핵기술 능력을 상당 수준까지 축적하면서도 군사적 무기화는 지연하며 “지금은 아니지만, 결코 영원히 아닌 것은 아닌(not now, but not never)”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헤징 전략은 나랑이 제시한 핵태세 이론과 맞닿아 있다(Narang, 2016).

파키스탄에게 핵무기는 보다 노골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게 그려진다. 저자는 파키스탄 대외정책을 지배해 온 장기적 정서를 ‘인도에 대한 구조적 열세와 그로 인한 불안’으로 요약한다. 인구, 경제, 재래식 군사력 모든 면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미국과 중국을 통한 외부 균형에 의존해 왔지만, 동맹 관계는 언제나 조건부였고 제재와 지원 중단의 경험은 방기의 위협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억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했고, 그 균형자로 핵무기를 상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출피카르 알리 부토의 “풀을 먹더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언급은 이런 구조적 열세 속에서 나온 압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두 경로는 1998년 양국의 공개 핵실험에서 만나게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포크란과 차가이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남아시아는 공식적인 핵보유 지역이 되었다. 공개 핵보유는 전면전의 문턱을 높이는 대신, 억지와 도발, 신중함과 과시가 얽힌 새로운 전략 환경을 만들어냈다. 저자는 이 시점부터 핵의 의미가 존재 여부를 넘어 운용 방식, 위기 시 신호 전달, 재래식 교리와의 결합이라는 문제로 옮겨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1999년 카길 전쟁과 그 이후 반복된 위기들을 상세

하게 소개한다. 핵실험 직후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핵이 전면전의 문턱을 높였음에도 국지적 무력 충돌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파키스탄 군부 일각은 핵억제가 인도의 대규모 재래식 보복을 제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제한적 기습 점령을 시도했고, 인도는 공군력을 포함한 재래식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저자의 지적대로 이 사례는 핵억제가 전면전은 억제할지언정, 바로 그 억지의 존재가 제한전과 국지 도발의 유인을 키운다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Jervis, 1990)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들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온 과정에 대한 분석도 눈길을 끈다. 라슈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와 자이쉬 에 모하메드(Jaish-e-Mohammed) 등 조직의 활동은 2001년 인도 의회 공격, 2008년 뭄바이 테러, 2019년 풀와마 공격 등 주요 위기와 연결되어 왔다. 저자는 파키스탄 군부와 ISI가 이들을 핵우산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 수단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은 남아시아 핵질서가 국가 간 억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군부, 정보기관, 비국가 행위자가 얽힌 복합적인 위기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핵전략의 변화 역시 이 책이 공들여 다루는 부분이다. 인도는 핵선제불사용(NFU)과 ‘신뢰할 만한 최소 억지(credible minimum deterrence)’를 표방해 왔지만, 저자는 실제 교리와 전력 구조가 이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파키스탄이 단거리 전술핵무기와 전범위 억지(full spectrum deterrence)를 발전시키고, 인도군 내부에서 제한전 교리(Cold Start) 논의가 진전되면서, 인도 내부에서도 보복의 신뢰성과 옵션 다양성을 둘러싼 논쟁이 강화되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다탄두(MIRV) 능력, 탄도탄 요격체계(BMD) 개발은 인도가 보복 능력의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필요시 상대 핵전력에 대한 공격적 선택지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Clary·Narang, 2019).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전술핵과 전범위 억지 교리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단거리 전술핵무기,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전력의 결합은 인도의 제한전 교리와 맞물릴 경우 위기 상황에서 핵 사용 임계점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남아시아를 ‘핵 트릴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으로 만

들었다고 지적한다. 곧, 선제공격(first-strike) 안정성, 위기 안정성, 군비경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핵역지가 전면전은 억제하지만 위기관리와 군비경쟁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불안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나랑의 핵태세 이론은 이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보복 역지를 표방하면서도 점차 카운터포스 유인에 노출되고, 파키스탄은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비대칭 에스컬레이션 태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Narang, 2014; Narang, 2016).

저자의 분석에서 남아시아 핵질서는 전면전 억지와 국지적 불안정, 군비경쟁이 동시에 심화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는 핵보유가 갈등의 종식을 의미하기 보다, 다른 형태의 전략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V. 이론적 함의와 남은 질문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남아시아 핵경쟁을 사건사(史)의 차원에만 두지 않고 국제정치 이론, 특히 신현실주의와 핵전략 논쟁 속에 위치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한다는 신현실주의의 기본 전제 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핵전략 변화를 설명한다.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 중국을 포함한 위협 인식, 동맹의 불안전성과 방기 위협 등은 모두 구조적 압력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설명은 월츠가 강조한 ‘위협 환경과 세력 분포가 국가의 핵 선택을 규정한다’는 명제를 남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핵전략을 둘러싼 서술에서는 미묘한 긴장도 드러난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인도에 대한 구조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동시에 저자는 군부와 정보기관의 자율성, 국내정치 역학, 지하디 조직 활용 등 파키스탄 행정치의 공세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측면도 상세하게 서술한다. 그럼에도 평가와 정책 권고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러한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파키스탄은 주로 구조적 열세와 동맹 방기의 압박에 시달리는 행위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핵보유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카슈미르에서의 국지 도발, 무장단체와 대리세

력의 활용, 위기 국면에서의 에스컬레이션 시도를 파키스탄이 주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키스탄 핵전략을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한 국가가 핵보유 이후에도 공세적 수단과 수정주의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자가 제안한 것처럼 파키스탄이 자발적으로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현실적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책은 신현실주의 내부의 핵심 논쟁인 핵혁명과 안정-불안정 역설, 월츠-세이건 논쟁을 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재검토한다. 월츠와 저비스가 주장한 핵혁명의 논리는 상호확증파괴(MAD) 아래에서 전면전의 유인이 사라지고, 국가들이 억지와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Jervis, 1990). 이 논리만 놓고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 이후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 부분 월츠식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9년 카길 전쟁, 2001 인도 의회 공격 이후 2002년까지 이어진 위기, 2008년 뭄바이 테러, 2016년 우리(Ur) 군 기지 공격, 2019년 폴와마 자살폭탄 공격과 발라코트 공습 등 반복되는 위기를 보면, 전면전 억지라는 전략 수준의 안정과 제한적 전쟁 및 재래식 도발의 증대가 공존하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남아시아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월츠-세이건 논쟁에 대한 해석도 이와 맞닿아 있다. 월츠는 핵무기가 전면전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임으로써 국가들이 신중해질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 세이건은 실제 조직과 국내정치, 지휘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러한 가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시아의 경험은 이 두 입장을 모두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지도부는 핵전쟁의 파국을 인식하고 대규모 전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 군부와 정보기관, 카슈미르 기반 지하디 조직, 강경 민족주의 여론 등은 핵억지가 제공하는 '상한선'을 전제로 저항도 도발과 위협한 모험을 반복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양면성을 구체적 사건 서술과 정책 문서 분석을 통해 보여주면서, 남아시아 사례가 월츠식 핵낙관론과 세이건식 비관론을 동시에 시험하는 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핵 트릴레마에 대한 논의는 제2핵시대의 전략적 안정성 연구와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 저자는 전략 안정성(first-strike 안정성),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 군비경쟁 안정성(arms-race stability) 사이의 긴장을 가리키는 이 개념을 남아시아에 적용한다. 인도의 BMD와 카운터포스 역량 강화, 파키스탄의 전술핵과 전범위 억지 교리가 이 세 차원의 균형을 어떻게 흔드는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인도의 방어·공격 능력 강화는 파키스탄에게 ‘먼저 쓰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을 강화할 수 있고, 파키스탄의 전술핵 및 분산배치는 위기 상황에서 통제 실패와 오판 위험을 높인다. 그 결과 남아시아는 전면전 억지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위기 안정성과 군비경쟁 안정성에서는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된 지역으로 묘사된다.

그럼에도 이론의 전개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째, 신현실주의의 구조적 설명과 국내정치 및 조직, 정체성 변수가 이론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결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짧게 처리된다. 저자는 파키스탄 군부와 ISI, 지하디 조직의 역할, 인도에서의 정당정치와 힌두 민족주의, 미국·중국의 개입 등을 풍부하게 서술하지만, 이들이 구조적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독자가 일정 부분 보완해서 읽어야 할 여지를 남긴다. 둘째, 파키스탄의 전술핵과 전범위 억지 전략을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안정성 차원의 우려가 주로 강조되고, 약소국이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현실주의적 논리는 상대적으로 간략히 다루어진다. 그 결과 국가 생존과 안보 극대화를 중시하는 신현실주의적 시각과 지역 안정성과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문제의식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 책은 남아시아 핵질서를 신현실주의와 핵전략 이론의 주요 논쟁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안정-불안정 역설, 윌츠-세이건 논쟁, 핵 트릴레마 논의를 구체적인 경험과 결부시킨 작업은 핵확산과 억지 이론을 경험적 연구와 접목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된다. 핵무기가 전략적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적 주장과 실제 지역 질서에서 관찰되는 반복적 위기와 군비경쟁을 나란히 조망함으로써, 이 책은 핵역지와 안정성 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V.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과 종합적 평가

이 책의 논의는 남아시아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논쟁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거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에 근접하고 있으며, 한국 내부에서는 핵공유나 자체 핵무장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지도부 응징 개념을 결합한 이른바 ‘3축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시아의 경험은 핵무기와 억지, 재래식·미사일 전력, 동맹 구조가 결합할 때 어떤 전략 환경이 형성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남아시아 사례는 핵무기가 갈등과 위기를 자동적으로 종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 이후 전면전은 피했지만, 카길 전쟁과 여러 차례의 군사위기, 테러와 국지전은 반복되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핵보유나 억지 강화가 곧바로 갈등의 해소나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 정권 안정성과 국내정치 압력, 체제 정당성, 동맹 구조와 방기 우려,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 등은 남아시아와 한반도 모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핵과 한국의 억지 전략을 논의할 때에도, 핵보유 이후에도 갈등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의 카운터포스·BMD·제한전 교리와 파키스탄의 전술핵·전범위 억지 조합이 남아시아 핵 트릴레마를 심화시킨 과정은, 북한과 한국·미국의 억지 구조에도 일정한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Clary·Narang, 2019). 북한이 생존 보장을 위한 2차 타격 능력을 추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정밀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지도부 응징 개념을 강화할 경우, 남아시아에서와 유사한 ‘선제 사용 압박’과 위기 상황에서의 오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남아시아의 사례는 억지력을 보강하는 수단이 동시에 위기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비교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거의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반면, 한반도는 비대칭 핵보유 구조에 놓여 있다. 이 차이는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남아시아는 상호핵구조 아래에서 전면

전 역지와 국지 위기가 병존하는 환경인 반면, 한반도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비핵 상태의 한국, 여기에 미국의 확장역지가 결합된 구조이다. 따라서 남아시아 사례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교훈은 핵보유 이후의 전략 경쟁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고,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적용을 위해서는 두 지역 간 구조적 차이에 대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는 남아시아 핵질서를 다룬 연구들 가운데서도 구조와 서사의 균형이 돋보이는 저작이다. 분리독립에서 시작해 전쟁과 위기를 거쳐 핵개발과 핵전략, 제2핵시대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서술은 남아시아 핵정치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쟁의 과정으로 보여준다. 신현실주의를 분석의 틀로 삼으면서도 국내정치와 정체성, 비국가 행위자, 강대국 정치의 요소를 함께 아우른 점은 이론과 경험을 함께 고려하려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핵무기를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장기간 전략 경쟁의 산물로 위치시키는 관점 또한 핵정치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남아시아 핵정치를 역사적 맥락과 국제정치 이론 속에서 종합적으로 복원하려는 이 책의 노력은 학문적, 정책적 의미가 크다. 책의 독자는 핵무기와 역지, 안정과 불안정, 생존과 전략 경쟁이라는 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서이며, 핵확산과 역지 이론을 경험적 사례와 연결하려는 연구자에게도 유익한 출발점이 된다. 한반도의 핵과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는 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핵역지 이후 전략 경쟁과 안정-불안정 역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분석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풀어내는 양국의 긴 역사와 끝없는 분쟁의 서사에는 냉정한 이론 작업과 함께 대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배어 있다. 이 서평에서 다 담지 못한 서술과 자료 활용의 밀도는 독자들이 직접 책을 통해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문헌

- 최윤정. 2025. 「끝나지 않은 분쟁: 파할감 테러로 본 인도-파키스탄 갈등 구조와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25-13. 세종연구소.
- Ahmed, Samina. 1999.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gram: Turning Points and Nuclear Choices." *International Security* 23(4): 178–204.
- Clary, Christopher, and Vipin Narang. 2019. "India's Counterforce Temptations: Strategic Dilemmas, Doctrine, and Capabilities." *International Security* 43(3): 7–52.
- Ganguly, Sumit. 2002. *Conflict Unending: India-Pakistan Tensions since 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nguly, Sumit, and Devin T. Hagerty. 2005. *Fearful Symmetry: India-Pakistan Crises in the Shadow of Nuclear Weapon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Jervis, Robert. 1990.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Kapur, S. Paul. 2007. *Dangerous Deterrent: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Conflict in South As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blenz, Gregory D. 2014. *Strategic Stability in the Second Nuclear Age*. Council Special Report No. 71.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Narang, Vipin.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rang, Vipin. 2016.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How States Pursue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 41(3): 110–150.
- Paul, T. V. 2014. *The Warrior State: Pakistan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gan, Scott D. 1993.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